

美中 갈등 완화 기대감... 항셱테크 ETF 수익률 고공행진

바이든-시진핑 회담에 반전
국내 상장 ETF 상승률 상위권
10개 중 8개가 中 관련 ETF
차이나항셱테크레버리지 61%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고공행진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8일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TIGER 차이나항셱테크레버리지(합성 H)'로 61.38%나 올랐다.

해당 ETF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중국 기업 중 정보기술(IT), 디지털, 클라우드, 핀테크 등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30종목을 편입한 '항셱테크지수'의 일별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다. 편입 종목으로

〈이달 상승률 높은 중국 ETF〉

(11월 1~18일 기준)

종목명	등락률(%)	추종 지수
TIGER차이나항셱테크레버리지(합성 H)	61.38	항셱테크 레버리지
KODEX차이나항셱테크(H)	43.73	HSCEI 레버리지
ACE 차이나항셱테크	22.09	항셱테크
KBSTAR 중국MSCIChina(H)	21.87	MSCI 차이나 인덱스
TIGER 차이나항셱테크	21.85	항셱테크
KBSTAR차이나항셱테크	21.71	항셱테크
KODEX 차이나항셱테크	21.60	항셱테크
KBSTAR차이나HSCEI(H)	20.78	HSCEI

출처: 한국거래소

는 샤오미, 텐센트, 징둥, 메이투안, 알리바바 등이 포함된다.

이달 중 ETF 상승률 상위권 10개 중 8개가 중국 관련 ETF였다. 홍콩 항셱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KODEX 차이나항셱테크(H)' ETF가 43.73% 오르면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항셱테크 지수 1배를 추종하는 ETF는 ▲4위 ACE 차이나항셱테크(22.09%) ▲6위 TIGER 차이나항셱테크(21.85%) ▲7위 KBSTAR 차이나항셱테크(21.71%) 등이 차지했다.

더불어 홍콩항셱지수의 1배를 추종하는 상품, 중국 신경제 관련 종목에 투

자하는 상품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증시지수는 불과 한 달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내려앉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에 더해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자금 이탈 속도가 커졌다. 지난달 월간 수익률 하위 10개 종목 중 7개가 중국 관련 ETF였으며, 'TIGER 차이나항셱테크레버리지'는 지난달 한 달간 무려 32.53%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대면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갈등이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최소한 첨예한 갈등이 더욱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테샨트 분위기가 현실화된다면 내년 초부

터 중국 경기사이클 반등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증시 기대감에 불구하고 지난 달 중국 내 실물지표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는 4조27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면서 시장전망치(1.0%)를 밑돌았다. 이외에도 생산, 투자 부문 지표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관련 봉쇄강화, 수출 부진 등을 감안하면 실물지표 둔화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며 "대외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모두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양회 이후 코로나 정책 완화가 구체화될 전망으로 향후 경기 반등은 정책 변화에 따른 내수 회복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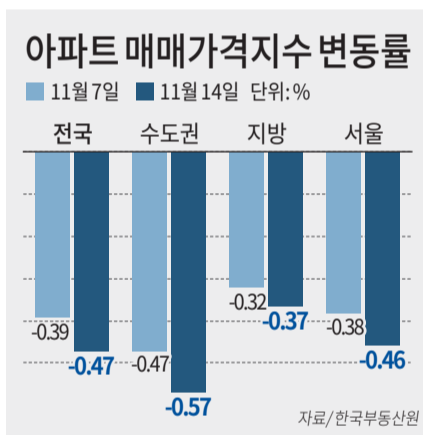
서울 아파트값 또 떨어졌다... 역대 최대 하락폭

매매가 0.46% 하락... 25주 연속
전문가들, 거래절벽 장기화 예상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집값 하락 등으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5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6%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38%)보다 0.08%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25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나뭇잎은 지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주 수치를 넘어섰다.

동북권에서는 노원구(-0.55%→-0.74%)가 월계·중계동 대단지, 도봉구(-0.56%→-0.67%)는 방학·창동구축, 강



북구(-0.48%→-0.64%)는 미아·변동대단지, 성북구(-0.44%→-0.51%)는 정릉·길음·하월곡동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동남권에서는 송파구(-0.58%→-0.60%)가 잠실·신천·문정동 주요 단지, 강동구(-0.47%→-0.49%)는 암사·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남권의 경우 금천구(-0.35%→-0.49%)가 독산·가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집값의 가파른 하락세와 금리 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매매수급지수는 70선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로 전주(70.7)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2년 8월 첫째 주(67.5)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수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급매물만 간헐적 매수 문의가 존재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주 대비 매매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한진한화그랑빌'은 지난달 전용면적 75㎡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9억6000만원) 대비 1억1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17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6월 거래가격인 21억1500만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16.3%(3억45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분양 캘린더

넷째 주 전국 7곳서 총 2430가구 분양

경북 영주 아이파크 등 청약 진행
건본주택 서울 등 9곳서 오픈 예정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430가구(일반분양 194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회정동 '양주덕정역한라비발디퍼스티어', 경북 영주시 휴천동 '영주아이파크',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유승한내들더스카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아이레디언트',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어울림파밀리에·동탄숨마데시앙',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 등 9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HDC아이앤코는 경북 영주시 휴천동 일원에서 '영주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66~115㎡, 총 4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KTX영주역과 가깝고 가흥교차로와 문정교차로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영주동부초, 영주중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중심 반경 2km내에 영주시청, 세무서, 보건소,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장위아이레디언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동, 총 28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97㎡, 133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역세권 단지이며,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시내와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영석 기자

/김대환 기자

거래소, 상임이사 2명 선임 예정... 비상임이사에 강태수 추천

임기 만료에 후임 조속 선임 추진
이사장 추천, 주총 의결 통해 결정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임기만료된 2명의 상임 이사 후임을 빠르면 이달 중 선임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7명의 상임이사 중 지난달 31일 임재준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과 조효제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이 기존 임기를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임원의 후임을 조속히 선임한다는 방침 아래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본부 등 5개 본부 중 임기만료된 두 본부 담당 임원은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전경.

이사장의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 절차로 선임된다. 한국거래소 내부 인사가 맡아온 유가증권시장본부장 후보로는 송명훈 상무와 김기병 상무 두명이 후보자로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용감독원 출신인 조효제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임에는 이경식 금감원 부원장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사실상의 임명과정인 이사장 추천 절차를 이르면 이달 중 마치고 임시주총을 열어 새 본부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가 맡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강태수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추천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유병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선임절차가 미뤄져 왔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이사회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강 전 부총재보를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로 추천한 뒤 주총을

열어 비상임 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강 부총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해 조사, 정책기획, 금융시장국 등을 거쳤다. 현재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2월 초 임기만료되는 김희정 현 상임감사위원 후임 선임 절차도 곧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상임 감사의 후임으로 관료가 다시 추천되거나 여권에서 진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사장과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8명을 이사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임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